

# 지역 출판사 5곳 합심 '인문 시리즈' 출간



'어딘가에는 @ 있다'

2년간 수차례 비대면 회의의 진행  
순천·고성·옥천·대전·통영 등  
지역 문화여건·삶의 기록 담아

“처음 듣는 지명, 낯선 사람, 생소한 사물들,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생활과 일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들이 전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작지만 가볍지 않고 단단하게, 다양한 색깔로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삶의 기록을 인문 시리즈로 담아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정든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운택한 조건을 갖춘 기업에서의 취업이 주된 이유이지만, 문화여건 등의 영향도 뒤따른다.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이런 사회 흐름을 역행하는 이들이 있다. 서울에서의 생활을 뒤로한 채 지역에 살

의 터전을 잡고 지역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낸 작은 출판사 대표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열매하나(순천), 온다프레스(강원 고성), 포도밭출판사(충북 옥천), 이유출판(대전), 남해의 봄날(경남 통영) 다섯 출판사 대표가 기획한 5권의 책이 나왔다. 첫 인문 시리즈 '어딘가에는 @ (엣) 있다' 프로젝트다.

열매하나 전소희 대표(39)는 “순천으로 터전을 옮겨 출판사를 운영하는 만큼 순천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지만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녹록지 않아 늘 아쉬웠다”며 “그런데 중 남해의 봄날 대표가 함께 힘을 합쳐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 보자는 제안을 해왔고 흔쾌히 동참하게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전 대표는 “애초 ‘숨은 고수를 찾아서’ 같은 인물 중심의 이야기를 기획하고 지역의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를 담기 위해 인물에 국한하지 않고 장소 등 지역과 연계된 것의 이야기를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책 기획 후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만나기 힘들었지만, 비대면임에도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저자를 찾고, 디자인과 편집에 이르



'어딘가에는 @ 있다' 참여 출판사 대표들이 자신들의 책을 들고 있다. /열매하나 제공

까지 많은 과정을 함께했다. 그렇게 각자의 지역색을 담은 책 5권이 세상에 나왔다.

전 대표는 순천 '정원' 이야기를 테마로 잡았다. 단순히 정원의 아름다움만이 아닌 지역 문제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장성해 작가의 '어딘가에는 마법의 정원이 있다'이다. 정년들이 떠나며 활기를 잃어가는 지역 사회, 원(園)도심은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불편과 문화기획자로 활동한 작가가 순천 구도심의 저전동 주민들과 활력을 되찾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외에도 이동행 작가의 '어딘가에는 아마추어 인쇄공이 있다' (온다프레스), 한인정 작가의 '어딘가에는 싸우는 이주여성'이 있다' (포도밭출판사), 임다는 작가의 '어딘가에는 도심 속 철공소가 있다' (이유출판), 정용재 작가의 '어딘가에는 원조 추무김밥이 있다' (남해의봄날)가 출간됐다.

전 대표는 “주민들과 동네책방 관계자들이 좋아하는 모습에서 막중한 책임감이 든다. 앞으로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발굴해 전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 전직 은행원이 전하는 일상 속 감성

이선주 시인 디카시선집  
'그리움 흔들리는 날' 출간



전직 은행원 출신인 이선주 시인의 디카시선집 '그리움 흔들리는 날' (서영)이 출간됐다.

시집에는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명품형 인간의 모습을 담아낸 시 '명품', 손녀와의 일상을 담은 시 '동심', '순수' 등 총 4부 96편의 시가 사진과 함께 담겼다.

실용적인 시의 한 장르인 디카시는 시인이 카메라로 사물을 찍는 데서부터 사물이 전하는 문자를 글로 풀어내는 것까지의 창작 행위를 의미한다. 기존 시에 어울리는 사진을 덧붙



이선주

여 시를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갈래의 예술이다.

자기계발서 '라떼는 말이야' 공저를 비롯해 수채화 작업, 패션 디자인에 관여하며 감수성이 풍부한 시인의 눈에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도 색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데 착안한 시선이다.

이 시인은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산책하다가 영감을 느끼는 대상을 찍는다”며 “이를 보면서 떠오르는 것을 글로 써내기도 하고 반대로 시를 짓고 이에 맞는 사진을 나중에 찍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나라 기자

한실문예창작 지도교수인 박덕은 평론가는 “이선주 시인의 디카시는 시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 이미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인생의 깊은 의미까지 보듬고 있다”며 “디카시를 읽는 내내 행복과 감동의 물결이 지속해서 흘러나래게 한다”고 밝혔다.

광주여상을 졸업하고 40여 년 동안 기업은행에서 근무한 이선주 시인은 지난 2011년 호남 지역 최초 여성 지점장으로 발탁돼 이후 10여 년간 5개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조선대학교 세무회계학 석사, 핀란드 알토대학교(Aalto university) EMBA 석사, 전남대학교 경영학 박사를 수료하면서 문학과는 거리가 멀 것 같지만 지난 2009년 서은 문학회에서 고 문병란 시인의 지도를 받았으며 지난 2020년 현대문예에 '개망초' 시를 게재하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현재 한실문예창작방그레 문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나라 기자

## 한실문예창작 동인지 '인연의 향기' 출간



2022 한실문예창작 문학 동인지 '인연의 향기' 제17호가 출간됐다.

이번 동인지에는 박덕은 문학생 102명이 참여했다.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문학생들의 디카시로 채웠다.

참여작가들은 생활 속 풍경을 담은 사진과 함께 해학과 유희, 유머, 낭만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시로 녹여냈다.

한실문예창작 박덕은 지도교수는 전남대에서 문학석사를, 전북대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장을 지냈다. /이나라 기자

### 새책 나왔어요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국립중앙박물관=역사학자이자 박물관 마니아인 황운 작가는 혼자 박물관과 유적을 찾아감상·고증·공부하는 것이 휴식이자 큰 즐거움이라고 말한다. 그런 그가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방'에 전시된 국보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주인공으로 스토리를 녹여냈다. 책 읽는 고양이. 416쪽.



◇심향=고향의 정취와 과거의 그리움을 보여주는 정형남 소설가의 소설집. 정형남 소설가의 단편 8편을 묶은 이번 소설집에는 각 등장인물이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과거를 회상하고 반성하며 삶의 근원을 찾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산지니. 224쪽.



◇사람보다 서귀포가 그리울 때가 있다=제주의 시조시인이자 서귀포 위미에서 나고 자란 오승철 시인이 서귀포 곳곳의 감성을 현대시조로 녹여냈다. 제주의 역사와 사투리와 정서를 담은 책을 읽다 보면 순간 제주도엔 온 기분마저 든다. 도서출판 황금알. 112쪽.



◇포용=정지용 문학상과 김삿갓 문학상 등을 받은 유자호 시인의 시집. 현재 (사)한국시인협회장, (사)구상선생기념사업회장을 맡고 있는 그의 시는 간결하고 솔직하다. 시인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성찰을 글로 담았다. 쉬운 우리말로 인생의 이모저모를 담아냈다. 도서출판 황금알. 136쪽.



◇오색오색 좀비 금붕어-2. 악마 뱀장어 대소동=미국 아동작가 모오하라 신간 오색오색 좀비 금붕어 시리즈. 좀비 금붕어와 악마 뱀장어의 대결 스토리다. 무시무시한 최면 능력을 가진 좀비 금붕어 프랭키는 톰과 프라디프 가족들과 뱀장어 해변으로 주말여행을 간다. 뱀장어해변에서 사는 악마 뱀장어는 마크형의 실험으로 메가톤급 슈퍼 좀비 뱀장어가 된다. 예림당. 208쪽.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전남매일

직장인 "홈술이 좋아요"...외식업체 몰상

전남농협 영수씨 육돈농담

전남농협 영수씨 육돈농담

전남농협 영수씨 육돈농담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군지사

|       |               |      |               |
|-------|---------------|------|---------------|
| 광산지사  | 010-3601-1102 | 장흥지사 | 010-3613-6114 |
| 목포(갑) | 010-3272-2765 | 강진지사 | 010-6646-1241 |
| 목포(을) | 010-3635-6777 | 해남지사 | 010-8181-2627 |
| 여수지사  | 010-8648-1236 | 영암지사 | 010-4624-8409 |
| 순천지사  | 010-2547-7890 | 무안지사 | 010-3621-8989 |
| 나주(갑) | 010-7706-2410 | 함평지사 | 010-3600-0500 |
| 나주(을) | 010-3713-7458 | 영광지사 | 010-8666-2882 |
| 담양지사  | 010-8004-9885 | 장성지사 | 010-3666-1300 |
| 곡성지사  | 010-6764-6100 | 완도지사 | 010-5619-7020 |
| 구례지사  | 010-6636-3039 | 진도지사 | 010-3624-4777 |
| 고흥지사  | 010-9151-2828 | 신안지사 | 010-4627-1472 |
| 화순지사  | 010-3100-0386 | 보성지사 | 010-5259-6441 |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